

광주학생운동 주역 박준채 선생 시 발굴

1929년 12월 창작 '회상' '암투' 등 31편 유학시절 등 창작... 항일 독립의지 담겨 문병란기념사업회 한일심포지엄서 검증

11월 3일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광주학생운동의 날이다. 알려진 대로 다음과 같은 내력이 전해온다. 지난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부근에서 일본인 학생이 광주여고보 학생을 희롱한다. 이에 격분한 한국인 학생 박준채가 일본인 학생에게 주먹을 날렸다. 다툼은 이내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충돌로 번졌고 11월 3일 광주의 시위로 확산됐다.

1929년 당시 나주역 통학 사건의 주인공이자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주역인 박준채(1914~2001) 선생이 일제 강점기에 쓴 시 31편이 발굴돼 화제다.

문병란기념사업회(회장 리명환)는 17일 박준채 선생이 와세다대학 유학 시절과 이후 식민시기에 집필한 시가 발굴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지난 5월 14일 문병란기념사업회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주최의 한일심포지엄 진행 중에 박준채 선생의 시가 건네져 검증이 되면서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에 집필한 박준채 선생의 시가 검증되고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된 시는 광주학생운동이 벌어졌던 1929년 12월에 창작한 '회상'을 비롯해 '암투', '촌감' 등 모두 31편이다. 노트 목록에는 모두 40편이 적혀 있지만 9편은 본문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경이 다 되도록 좁은 방에서/ 을사년중 한 일을 회상을 하니/ 나의 눈엔 눈물이 가득하여요// 십일월삼일은 잊지 못할 날/ 더러운 저네들의 비겁행동은/ 그 누가 안 웃을 이 있을거보나// 새 삶을 구하는 자 무산자라도/ 단결과 인내는 그들의 무기/ 힘차게 싸워라 군새인 동지여// 피바다로 굴러가는 무궁의 대지에/ 평화로운 이상향 이를 그때엔/ 우리도 그곁서 자유를"



생가에 전시된 박준채 사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제공>

제 살자'('회상' 전문)

'회상'은 단결과 인내를 통해 힘차게 싸워나가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비겁한 일본의 행동을 질타하며 광주학생운동을 촉발하게 했던 일본인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떠올린다. 또한 작품에서 11월 3일을 잊지 못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박 선생의 시 발굴은 한일심포지엄을 주관한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의 관심과 열정이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 김 교수는 '진필 원고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다면 역사적인 인물의 실상과 진실이 그대로 묻힐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심포지엄 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원본 대조 절차에 돌입했



발굴된 시가 수록된 노트 <문병란기념사업회 제공>

다.

이후 일본어 시 검증을 위해 10편의 일본어 시 가운데 '환영'이라는 작품을 일본 시인 시가와 아키 씨의 메일로 보내 시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에 시가와 아키 씨는 "보내준 작품을 시로서 잘 정리된 것이고 새로운 서정성과 리듬이 있으며 일본어 표현도 뛰어나다 생각한다"고 답장을 보내왔다.

노트 목록에 수록된 시들은 제목 뒤에 괄호를 새겨 넣었고 각각 '시조', '한시', '하이쿠' 등으로 장르가 구분돼 있다. 박 선생은 한글 시와 일본어 시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기록했다. 또한 한 30년 초에는 고향과 서울에서 집필한 시가 대부분이었고 34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지은 시가 다수를 차지했다. 물론 귀향해서 쓴 작품도 있다.

한편 김정훈 교수는 "박준채 선생은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나 순간을 시적 감성에 실어 표현했다.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독한 자아를 노래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며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전국, 해외로 퍼져나간 29년 마지막 날 그가 작성한 시, 와세다 유학시절에 창작한 저항시에는 독립 쟁취를 향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출판계도 '우영우' 효과

에피소드 원작 3주만에 5천부 팔려

케이بل 채널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하 '우영우')가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 에피소드가 활용된 원작의 판매량도 증가하는 등 출판계에서도 우영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출판계에 따르면 16부작 드라마 우영우의 에피소드 원작 에세이는 총 3권이다. 우영우는 오리지널로 기획된 작품이라 원작이 따로 없지만, 일부 회차별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들이 쓴 수기집에서 발췌해 사용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조우성 변호사의 에세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뽕앤파커스 imprint '서삼독')는 드라마 방영 시점과 맞물려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3대 서점에서만 3주 동안 5500부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보상금 100억원 때문에 삼형제가 소송을 벌인 '삼형제의 난' (우영우 4회) 편은 조 변호사가 막내동생을 대리해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다. 책에서는 조 변호사가 기지를 발휘해 불합리한 당초 각서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세 형제가 공평하게 몫을 나누도록 한다. 또 자신이 죄를 덮어준 사람에게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도모하는 교도소 안 사람들의 모습, 로펌 근무 시절 워크숍 참석차 내려간 지방의 한 식당에서 느낀 문제점을 찾아내 법률 자문까지 했던 일화 등의 책 내용은 다음 달 방영분에서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신민영 변호사의 국선변호사 사건 일지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2016·한겨레출판)와 신주영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들의 스토리에 주목한 '법정의 고수' (2020·솔)도 에피소드 원작으로 사용되면서 판매량이 늘었다.

/연합뉴스

유희열 13년간 진행 '스케치북' 하차

표절 논란에 휘말린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13년간 진행해온 KBS 2TV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한다.

유희열은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600회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1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18일 밝혔다.

유희열은 2009년 4월부터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주 방송일인 22일에 600회가 방송될 예정이다.

유희열의 표절 논란은 지난달 발매 예정이었던 프로젝트 음반 '생활음악' 수록곡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고, 과거 유희열이 작곡한 성시경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등의 곡들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희열은 하차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제기된 표절 의혹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뿐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 엄격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주니어 콘서트, 호남예술제 출신 두각

8월 24일까지 금호아트홀

남하승·변예지·류주은 등 출연

청년 클래식 음악가들의 등용문 '제 13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가 오는 8월 24일까지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과 유스퀘어문화관이 주최하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만 26세 이하 주니어 연주자들을 발굴, 데뷔 무대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157명의 예비 음악가가 무대에 올랐다.

이번 콘서트는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 출신 연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제 60회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남하승(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1학년)은 오는 8월 23일 독주회를 갖고 바흐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G단조', 베토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D장조',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조', 비에나프스키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을 들려준다.



남하승



변예지



류주은

오는 8월 16일 독주회를 갖는 플루티스트 변예지(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2학년)는 제 62회와 63회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아다지오 E 장조', 드메르스랑 '6번째 솔로 콘서트', 마르탱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 피아졸라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탱고의 역사', 라이네케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운디네' 등이다.

제 64회 호남예술제 금상을 수상한 류주은(예원학교 2학년)양도 독주회를 갖고 베토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D장조', 밀스타인 '파가니니야나',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 소나타', 비에나프스키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15'를 연주한다.

이번 제 13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 첫 무대는 오는 19일 소프라노 김영선(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이 이끈다. 김영선은 슈베르트 '미몽의 노래', 슈만 '줄리아의 노래', 슈트라우스 '소녀의 꽃', 쥘 마스네 오페라 '마농' 중 '나는 모든 길을 행진합니다' 등을 들려준다. 이어 메조소프라노 김유정(전

남대 대학원·20일), 소프라노 유지주(전남대·26일)의 무대가 이어지며, 피아니스트 최주원(전남대·8월 10일), 호른리스트 조혜선(전남대·8월 11일), 피아노 김윤경(광주예술고등학교 3학년·8월 17일),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줄리어드음악원·8월 18일) 독주회도 열린다. 전석 1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